



3면

도, 시로봇 산업 육성 원년 선포

전주매일

www.jjmaeil.com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6년 2월 10일 화요일 (음 12월 23일) 제3915호

대표전화 (063)288-9700



우범기 전주시장은 9일 전주MICE 복합단지(옛 전주종합경기장 부지) 내 축조된 현장사무소를 찾아 협약 대상자인 롯데쇼핑(주)과 시공사인 롯데건설 관계자로부터 공사 준비 상황을 보고 받고, 현장 안전 상태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

전주컨벤션 건립 공사 본격

우범기 시장, 현장사무소 찾아 롯데건설과 현장 점검
현장사무소 마련 따라 안전관리계획 수립 후 내달 공사
새 랜드마크 건설 위해 안전·품질 확보 최우선 주문

전주 경제의 새로운 심장부이자 랜드마크가 될 전주컨벤션센터 건립 사업이 인력 투입과 공사 관리를 위한 현장사무소가 마련되면서 본격적인 공사의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9일 전주MICE 복합단지(옛 전주종합경기장 부지) 내 축조된 현장사무소를 찾아 협약 대상자인 롯데쇼핑(주)과 시공사인 롯데건설 관계자로부터 공사 준비 상황을 보고 받고 현장 안전 상태를 면밀하게 검토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전주컨벤션센터 건립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것으로, 롯데쇼핑(주)과 롯데건설 임원진 등 관계자들이 현장을 찾아 공사 준비 상황과 향후 추진계획 등을 공유하는 자리로 꾸며졌다.

이 자리에서 우 전주시장은 공사 일정 전반을 확인하고 시공사인 롯데건설에 실착공 전후로 발생할 수 있는 현장 위해요소 사전 차단을 강력히 주문했다. 또, 안전과 품질 확보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공사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사업시행사인 롯데쇼핑(주)과

시공사인 롯데건설은 공사 전 과정에 시민과 작업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엄격한 안전 체계를 갖추고,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전주 랜드마크를 건립한다는 책임감으로 무재해 현장과 최상의 시공 품질을 실현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시는 지난해 12월 착수한 현장사무소 축조가 마무리됨에 따라 본격적인 공사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이달 중 안전관리계획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한 뒤 오는 3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전주컨벤션센터는 지역 MICE산업 경쟁력 확보를 통해 글로벌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로, 육내·외 전시 면적 2만㎡와 20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대회의실, 20실 이상의 중소회의실 등을 갖춘 연면적 약 8만3000㎡ 규모의 전시·회의·비즈니스 기능을 갖춘 복합컨벤션시설로 오는 2028년 말 건립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전주MICE복합단지에는 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호랭(4성급, 200실 이상 규모) △상업시설인 판매

시설 △AI 기반의 첨단 디지털 체험 공간인 G-Town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전주시립미술관도 함께 들어선다.

시는 오는 2028년 전체적인 공사가 마무리되면 참체한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전주경제의 심장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24년 11월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전주컨벤션센터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했으며, 이어 12월 전북특별자치도와 컨벤션센터 건립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 지난해 9월 모든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기공식을 열어 건립 사업의 서막을 열었다.

협약대상자인 롯데쇼핑과 시공사인 롯데건설 관계자는 "현장사무소 축조가 완료됨에 따라 모든 공사 준비가 끝났다"면서 "전주시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전주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컨벤션센터를 안전하게 건립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현장사무소 축조가 완료되면서 마침내 전주컨벤션센터 건립이라는 거대한 여정의 실질적인 출발점에 서게 됐다"면서 "전주가 MICE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롯데 측과 함께 단 1%의 오차 없는 완벽한 시공과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권희성 기자

민주 도지사 경선 '2강 1중 1약' 구도

여론조사 결과 김관영 지사 지지율 35% · 이원택 의원 28% '2강 체제'
경선 한달 여 앞두고 네 후보자간 경쟁 치열... 1차경선 투표 3월 중 추진

최근 도내 언론사들이 실시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원택 의원의 지지율은 날이 갈수록 수직상승 곡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도민들의 지지율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 조만간 현역과 2강 1중 1약 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보여 불꽃튀는 혈전이 예고되고 있다.

이는 지난 6일과 7일 모 언론사가 실시한 도지사 후보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이원택 의원은 경우 30%대 근접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는 반면 현역인 김관영 지사는 30% 이상을 뛰어 넘어서지 못하는 답보 상태를 기록, 안호영 의원 참체국면, 정현을 익산시장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9일 도내 방송과 신문 및 민영통신을 비롯한 여론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원택 의원의 경우 지난 10월 도지사 출마선언이후 도민 지지율 12%에서 시작해 18%, 24%, 28%를 기록, 시간이 흐를수록 수직상승 곡선을 타면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현역인 김관영 지사는 선두를 유지하면서 처음 31%, 33%, 27%, 33%, 35%대로 도민들의 지지율을 기록, 다소 늘었다줄었다는 현상을 보여 이 의원과 치열한 각축전이 전망되고 있다.

더구나 지사 직무만족도에서 53% 정도 지지율을 기록한 반면 재선을 원하는 도민들의 반응은 교체를 53%



김관영 도지사



이원택 의원



안호영 의원



정현을 익산시장

전망이다. 여기에서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1위와 2위를 놓고 결선투표를 실시해 승리한 쪽이 더불어민주당 주당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로 확정돼 각당 후보들이 참여한 지방선거에서 도민들의 투표를 걸쳐 도지사로 선출된다.

도내 정치권의 한 인사는 "정치적 움직임은 생물이기 때문에 여론조사는 참고용으로 사용해야지 무조건 신봉해서는 안 된다"며 "지금의 여론조사로 보아 이원택 의원의 수직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사실로 보이고 있으나 정답은 어디에도 없는 만큼 각 후보들은 강력한 정책 방향과 반듯한 공약을 내세워 새로운 전북미래 건설을 위한 슬로건으로 도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선거는 이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원택 의원은 지난 7일 전주대학교 학생회관에서 진심어린 주제로 출마선언회를 갖고 1만여명의 지지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강력한 전북이단 슬로건으로 외발짝에서 내발짝으로 대전환을 이휘 도지사 선거전에 임하겠다는 자세를 보였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와 문정복·이성윤 최고위원, 한민수 당대표 비서실장 등 지도부가 대거 참석해 축하 등 자리를 빛냈다. /권희성 기자

도민 지갑 두껍게... 소상공인 경영 부담은 가볍게...

도, 설명절 맞아 '지역경제 상생 정책' 추진

전북특별자치도는 설 명절을 맞아 물가안정과 소비촉진,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지역경제 상생 정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우선 도민 정비구리 물가 안정 대책을 집중 추진한다. 도 실국장을 시군별 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해 성수 품 등의 물가 동향 등을 점검하고, 설

연휴기간을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물가안정 종합상황실 운영 등 체계적으로 물가 변동 상황에 대응할 계획이다.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 정책도 강화한다. 지역상권 이용 부담(bump-up)을 위해 전통시장에서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국내산 농축수산물 구매할 경우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은누리상품권(1인 2만원 한도)으로 돌려주며, 민관이 함께하는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도 전개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맞춤형 금융 지원도 신속하게 추진된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회생 보듬자금 특례보증 등 9개 상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명절 경영안정자금 등 3개 상품을 포함해 총 12개 상품 7,8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시행한다. /0만호 기자

농업인의 정성이 담긴 최고의 '품질' 최상의 '먹거리'



익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탑마루
TOP MARU

